

### 3장 십자가: 용서가 아니라 무용지물 (The Cross As Futility, Not Forgiveness)

#### A. 주제(Thesis):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의 열정(passion)과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인한 것이다.

#### B. 문제점(Problems):

1. 예수의 십자가를 죄와 용서라는 틀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2. 십자가에 대한 오해들
  - 1) 십자가는 예수라는 특별한 존재를 위한 처형 방식이다.(p.88)
  - 2)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일부이다.(p.110)
  - 3) 예수의 수난 이야기들은 목격자들의 기록이다.(p.89)
  - 4)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다.  
: 피의 속죄 -예수의 이야기를 '죄, 죄에 대한 책임, 용서'라는 틀로 본다. 일반 기독교의 지배적인 해석. ⇒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해석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강력한 주장(p.106)

#### C. 논점(Argumentation):

1. 기억된 역사(history remembered)가 아니라 역사화된 예언(prophecy historicized)(p.95).
  - 1) 예수의 처형 이후 한 세대가 지나서야 예수의 죽음이 갖는 구원적 성격과 유대인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상이 확립되었다.
  - 2) 첫 번째 복음서(마가복음)의 배경: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 및 성전 파괴  
⇒ 예수의 죽음이 의미를 갖는 이야기 작성할 필요성 대두(p.93)
  - 3) 예배를 위한 전례: 성경의 '예언적' 권위에 호소함으로써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목적(p.104)
  - 4) 유월절과 예수의 죽음을 연관 시킴 - 예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최후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잠시 연기된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을 성경에서 찾았을 것이다.(p.98)
2. 예수는 왜 처형 당했나?
  - 1) 성전 타파 사건(성전 정화 사건이 아닌)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의 행동 때문이다(마가)(p.91).
  - 2) 그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열정(passion)을 가졌기 때문 - 그것은 꼴찌들, 소자들, 잃어버린 자들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서도록 돕는 적극적인 행동과 가르침으로 나타난다.
  - 3)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종교적, 사회적 위계질서와 체제를 타파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체제와 대립할 수 밖에 없었다.

3.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다'는 고백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인가?
  - 1) 배경: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희생제사 제도(성전 신학) – 성전이 죄의 용서를 독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독점권 소유
  - 2) 이 말은 성전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성전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체제전복적(subversive) 의미를 갖는다.(p.107) ⇒ 성전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막 11:17)이어야 한다.(p.108)
  - 3)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의 은유적 표현
  - 4) 이러한 놀라운 은총의 선언이 4 세기에 이르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도적인 독점권의 주장으로 둔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교회와 로마제국의 결혼 ⇒ 교리와 칼을 통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집'으로 회귀(p.109)
  
4. 기존의 법과 질서, 종교체제, 사회적 위계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간단했다(86). 그러나 십자가가 육체를 죽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나 영혼을 죽이는 데는 궁극적으로 무용지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절 이야기이다.(p.109)

#### D. 평가(Critique):

1.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을 '죄와 용서'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2.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십자가 그 자체보다 저항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야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항에는 '대상'이 있고 '상황'이 있다. 예수가 제자들(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명했다면 우리가 저항하고 타파해야할 대상과 상황은 무엇인가? 나를(or 우리를) 누구(or 어떤 세력)와 동일시 하는 것이 적절할까?
3. 십자가 처형 이야기는 역사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전례의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을 예수의 죽음 이후 '하나님나라 운동'이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종교'라는 틀로 만들어져 가는 것으로 봐도 될까? 그런데 이 위대한 가르침과 운동이 불과 몇 세기도 지나지 않아 예수의 정신이 상실되거나 왜곡된 제국의 종교가 되고 만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